

■ 르포... 초대형 태풍 '볼라벤' 상륙 길목 가거도 초비상

# “방파제 복구 멀었는데...” 무이파 악몽

## 목포 21개 항로 통제·나주 과수농가 낙과 방지 총력

“벌써 12m 되는 방파제를 파도가 넘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고, 백중사리까지 겹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민반의 준비는 했지만 걱정입니다.”

27일 오후 7시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북상하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는 초비상이었다. 지난해 태풍 '미이파'로 방파제 480m 가운데 220m가 심하게 파손되는 등 태풍 피해를 입었던 가거도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태풍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불안해했다.

박원호 신안군 가거도출장소장은 “이번 태풍이 강력한 데다 무이파와 진로도 비슷해 주민 모두 크게 긴장하고 있다”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는 마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거도 주민들은 해수 유입을 막기 위해 집 앞에 모래포대 등으로 임시 방벽을 쌓고 있었다. 음식점 등은 물을 가득 담은 통을 간판에 매달아 강풍에 대비하는 모습이 었다.

그러나 무이파보다 더 센 바람과 많은 강수량을 머금은 볼라벤이 다가올수록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의 한숨은 컸다. 주민 정모(57)씨는 “방파제가 다 복구됐다고 해도 불안한 판에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더 큰 태풍을 맞았다”며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잘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물론 목포, 무안, 여수 등도 28일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전남 해안 지자체들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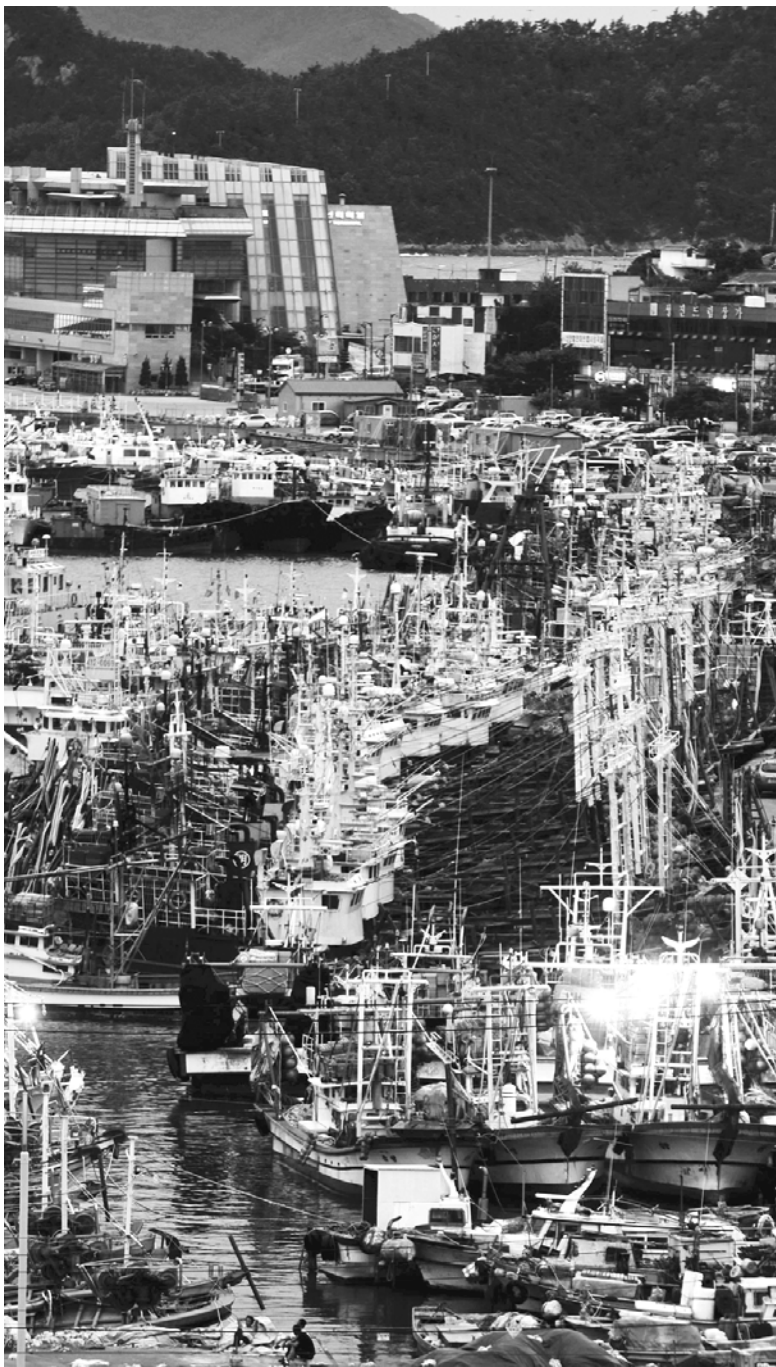
목포 북항 등 인근 포구에도 어민들이 어선과 화물선 등을 정박시킨 채 선박을 결박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내달 추석을 앞두고 사과, 배 과수원 등은 낙과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 각 시·군 과수농가도 배수관과 하우스 시설 등을 손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미 지난 23~24일 300mm의 집중호우로 침수사태를 빚은 여수는 최근 폐막한 여수박람회장, 여수국가산단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태풍 북상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형 건설현장에 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은 이날부터 비상근무반을 가동하고 공사장 주변에 300t 규모의 가설 옹벽이 파는 등 쪽우에 대비하고 있다. 남구 신청사 리모델링, 북구 임동광주야구장, 순천정원박람회장 등에서는 직원들이 강풍과 폭우 피해에 대비해 임시 고정시설을 설치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목포=김대성기자 bigkim@/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긴급대피... 창문보호

27일 오후 1000여 척의 어선과 여객선이 태풍을 피해 목포시 만호동 목포여객선터미널에 임시정박해 있다. 아래는 오후 5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볼라벤에 배란다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와 신문지를 붙인 모습.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성매매 안마업주 등 무더기 덮임

### 전남경찰, 16명 입건

경찰이 불법 성매매안마시설소 전용 건물을 급습해 업주와 접대여성, 남자손님 등 16명을 붙잡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안마시설소에서 성매매를 한 업주 남모(30)씨, 접대여성 홍모(35)씨 등 6명, 이모(41)씨 등 손님 등 16명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목포시 상동에 6층 건물 모두를 안마시설소로 운영하면서 1

인당 현금 16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업장부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6명의 접대여성이 하루 4~5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지난 2011년 초 단속 이후 수익금이 수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 계단을 막고 1층에서 2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면서 경찰로 의심되는 손님이 오면 엘리베이터 작동을 끄고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일주일 사이 두차례 상점 총기 추정 테러

광주 남구서... 통유리 10mm 구멍 뚫려

광주시 남구의 한 가게에서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총기 추정 테러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1시32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장모(38)씨 가게의 강화 통유리(두께 8mm)가 파손되면서 보안장치가 작동, 보안요원들이 출동했다.

강화 통유리에는 지름 10mm의 구멍이 뚫렸으며, 구멍 주위로 원형(지름 15cm)으로 충격 받은 흔적이 확인됐다. 또 충격으로 통유리 전체에 금이 갔다.

같은 시간 매장 CCTV영상에는 보조선 창문을 연 렉스턴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매장 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찍혀 있었다. 또 인근 방범용 CCTV에는 이 차량이 무동시장 인근을

지나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새벽 사이에도 장씨의 가게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첫 사고 이후 보안업체에 요청해 CCTV를 설치했다.

경찰은 총기류 추정 피해로 보고 통유리 일부를 회수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유리가 관통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총기에 의한 파손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범행도구가 밝혀지지 않아 사제 총기를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 민형배 광산구청장

### 벌금 400만원 구형

광주지검 공판(이정현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정선거 원

칙을 크게 훼손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민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

## 총인비리 뇌물 2000만원 '배달사고'?

### “부하가 쓴 것 같다 하더라” 범정증언 나와

“금호산업 조모 팀장이 구치소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시청 직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배달사고가 났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써버린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과 관련된 금호산업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서기관이 실제로 뇌물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금호산업 조 팀장, 이 서기관과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조 팀장은 교수들에게

전달할 5000만원도 부하직원에게 시켰는데, 교수들이 모두 거부해 그 가운데 500만원은 경비로 쓰고 4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했다”며 “구속돼 들어와 기소될 시점까지 같은 방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사건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나머지 교수, 기술직 공무원 등과 이를 부인하고 “배달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 등에 대해 어떻게 선고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검찰이 기소한 28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640) 김장두



### 어린이집 차량 사고 8명 부상

27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이모(66)씨가 운전하던 모 어린이집 승합차량과 박모(43)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아동 6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도심서 뇌진탕?



○천연기념물 324-2호이면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수리부엉이가 광주 도심 한 북관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

○27일 광주서부경찰서 풍양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23분 광주시 서구 풍양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수리부엉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 이 부엉이를 안전하게 포획한 뒤 서구청과 동물병원에 인계했다는 것.

○동물병원 관계자는 “엑스레이 촬영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부엉이가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혀 일시적인 뇌진탕을 일으킨 것 같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금당산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